

고대중국어 경제적 언어사용의 실제성 연구*

— 『孟子』를 중심으로

이소동**

<目 次>

1. 서론
2. 통사적 방면
3. 어휘적 방면
4. 화용적 방면
5. 수사적 방면
6. 결론

1. 서론

현대중국어에 비해 고대중국어의 가장 두드러진 외형상 특징은 아마도 문장이 간결하다는 것일 것이다. 고대중국어 문헌의 함축적 의미와 해독의 난해함은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고대중국어에서 언어사용의 간결화는, 주지하듯이, 동한시대 이후 불경의 유입에 따른 점진적인 복음사회가 진행되기 전, 거의 대부분이 단음절 단어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고대중국어에서 이러한 단음절 단어의 보편적 운영은 간결한 언어표현의 작은 부분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고대중국어 문장의 길이를 줄여 의미를 난해하게 만든 요인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문장을 보자.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8019598).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孟子對曰, “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者, 是以後世無傳焉, 臣未之聞也. 無以, 則王乎?” 『孟子·梁惠王上』

1-1) 孟子回答說: “孔子的學生沒有談論齊桓公、晉文公稱霸之事的, 所以沒有傳到後代來, 我也沒有聽說過. 大王如果一定要我說. 那我就說說用道德來統一天下的王道吧?”¹⁾

1-1)은 고대중국어 문장 1)에 대한 현대중국어 표현이다. 단순히 문장의 장단을 가지고 볼 때, 현대중국어가 고대중국어에 비해 2배 정도 길어짐을 볼 수 있는데, 먼저 ‘徒’, ‘道’, ‘聞’, ‘傳’ 등의 단음절 단어들인 현대중국어에서 ‘學生’, ‘談論’, ‘听说’, ‘传到’ 등의 쌍음절 단어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현대중국어의 “大王如果一定要我说. 那我就说说用道德来统一天下的王道吧?”에 해당되는 고대중국어 원문이 “無以, 則王乎?”이며, 사실상 대부분의 축약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고대중국어 ‘無以’에 대한 설은 분분하다. 대표적으로 ‘以’를 명사로 보는 시각과 ‘無(명)以VP’구조에서 명사와 VP가 생략된 구조로 보는 경우인데, 양자의 분석에 상관없이 여기서의 ‘無以’는 1차적으로 ‘(~하는)방법이 없다’의 의미로, 무슨 방법이 없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구조이다. 杨伯峻은 이에 “대왕께서 만약 저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라고 하신다면(大王如果一定要我说)”의 의미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아마 “대왕께서 만약 저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방법) 없게 하고자 하신다면”에 대한 의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장에서는 주체(대왕)와 대상(나), 그리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전후 문맥에 의해 생략된 것이다. ‘則王乎’ 또한 양백준을 비롯한 일반적인 해석은 “그러면 왕도에 대해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도가 되어, 왕도를 ‘王’으로 나타내고 조동사 및 ‘말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등이 생략되어 있다. 고대중국어에서 이러한 간결한 표현은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며, 바로 고대중국어 경제적 언어사용의 실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고대중국어에서 언어사용의 간결화는 자, 단어, 구와 절의 생략 및 내포²⁾와 직

1) 杨伯峻, 『孟子译注』, 北京, 中华书局, 1988년, 18쪽.

2) 언어학적 관점에서 생략의 의미는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본문에서는 한 단어의 의미와 관

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지만 생략과 내포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데, 본문에서는 『孟子』에 출현하는 생략 및 내포구조를 대상으로 통사, 어휘, 화용, 수사의 4방면에서 그 실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³⁾

2. 통사적 방면

모든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언어의 구성요소를 보통 통사, 어휘, 음성으로 분류할 때, 그 중에 어휘의 변화가 가장 빠르며, 언어의 골격에 해당하는 통사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며 변화가 적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통사방면에서 중국어의 안정된 변화를 언급하자면, 고대중국어에서 현대중국어로 갈수록 그 통사구조가 좀 더 완전해지는 특징을 지닌다. 판단계사로 불리는 ‘是’는 한 대에 처음 탄생하였지만, 고대중국어 전반에 걸쳐 ‘是’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是’ 외에도 존재는 하였지만 자주 생략되어 현대중국어에는 없는 통사구조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고대중국어에서 소위 동사, 형용사, 명사의 ‘使動化’, ‘以動化’ 등이 그러한 종류이며 詞類活用(단어의 임시사용)이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 것 또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고대중국어의 통사적 특징은 단어의 생략으로 야기되는데, 곧 문장의 간결화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한다. 통사방면에서의 간결화는 단어내부의 의미 변화라든지, 화용적, 수사적 방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고대중국어 통사구조의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판단계사 ‘是’ 외에, 기타 단어의 생략에 의한 간결한 통사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2) 昔者魯繆公無人乎子思之側，則__不能__安子思，泄柳申詳無人乎繆

계없이 전후의 성분이 빠져있을 때를 ‘생략’이라고 하며, 한 단어의 의미에 다른 의미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를 ‘내포’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 3) 주의할 점은 고대중국어에서 생략과 내포가 빈번히 발생함은 현대중국어에 비하여 그런 것이지만, 선별하는 기준은 현대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대중국어의 일반적인 언어현상과 그 완전한 의미구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선별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公之側, 則__不能__安其身. 『孟子·公孫丑下』
 (옛날 노목공은 子思의 곁에 사람이 없으면 子思를 편안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泄柳, 申詳은 목공의 곁에 사람이 없으면 그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고 여겼다)
- 3) 曾子曰, ‘不可,__江漢以濯之,__秋陽以暴之, 皜皜乎不可尚已.’ 『孟子·滕文公上』
 (증자가 말하기를 “불가하다. 江水와 漢水로 씻은 듯하고 가을 햇볕에 쬐이는 듯하여, 맑고 맑아 더 보텔 것이 없다”라 하였다)
- 4) 齊宣王問曰, “__文王之囿__方七十里,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孟子·梁惠王下』
 (제선왕이 묻기를 “문왕의 뜰은 방 칠십리 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孟子가 답하기를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라 하였다)
- 5) “是詩也, 非是之謂也, __勞於王事而不得養父母也.” 『孟子·萬章上』
 (이 시는 그것을 말함이 아니라 王事に 고달과 부모를 봉양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예문2)에서 “不能安子思”의 의미는 “자사를 편안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되는데, 원문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다’와 ‘하게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 즉 “以爲不能使子思安”에서 ‘以爲’와 ‘使’가 생략되어 이루어진 구문으로 어법학계에서 칭하는 소위 ‘以動’, ‘使動’ 용법에 해당한다. “不能安其身”도 동일한 구조이며, 예문3)에서 “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 역시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한 듯하다’, ‘갈다’의 의미를 가지는 비유 동사 ‘如’나 ‘若’ 등이 빠져 있는 형태이다. 예문4)에서 ‘方七十里’의 앞에는 판단동사가 결합되어 있으며, “文王之囿方七十里”의 앞에는 ‘뜰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聞’이 생략되어 있다. 예문5)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이르다’, ‘말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닌 ‘謂’나 ‘言’이 생략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앞의 예문 1) “無以, 則王乎?”에서 ‘王’은 “왕도에 대해 말해도 되겠습니까?”의 의미인데, 통사적 방면에서 보면, ‘말하다’의 동사 ‘言’과 ‘되다’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 ‘可以’ 정도가 모두 빠진 형태이다.

생략구조는 고대중국어에서 전문적인 슬어가 있을 정도로 개별적인 현상이 아닌 보편적 현상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관계동사 ‘以爲’, ‘爲’, 비유동사 ‘如’,

‘若’, 존재동사 ‘存’, ‘有’, 사동사 ‘使’와 조동사 등이 보통 생략의 주체가 되며, ‘聞’, ‘謂’, ‘言’과 같은 동사도 ‘여기다’, ‘생각하다’의 동사와 동일하게 문장에서 주 내용과 관계가 먼, 직간접 인용문에 대한 관계만 설정해주는 관계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종종 생략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以動’, ‘使動’의 관점 외에도 진술화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소동(2014)에 의하면 고대중국어에서 어휘의미가 약한 위의 동사들은 종종 생략되어 통사방면에서의 진술화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⁴⁾ 이와 같은 결론은 고대중국어의 통사 규칙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진술화의 발생여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진술화는 명사성의 단어나 구가 술어의 위치에 왔을 때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위의 예문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나 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진술에 해당되는 전체 절이나 문장이 또 다른 진술의미를 가진 술어로의 전환을 나타내므로 진술화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의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명사가 생략된 통사구조이다.

- 6) “殺人以挺與刃, 有__異乎?” 曰, “無__以異也.” 『孟子·梁惠王上』
 (“뿔망이와 칼로 사람을 죽임이 다름이 있습니까?”라 묻자 말하길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라 하였다)
- 7) 陳相見許行而大悅, 盡棄__其學而學焉. 『孟子·滕文公上』
 (陳相은 許行을 만나더니 크게 기뻐하며 그가 배웠던 것을 모두 버리고 그에게 배웠다)

예6)은 고대중국어에서 숙어처럼 굳어진 ‘有/無+개사VP’구문으로 개사 앞에 개사의미와 상관된 명사가 생략된 구조이다.⁵⁾ ‘有以異乎?’, ‘無以異’는 ‘다른 이유(까닭)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의 의미로 ‘이유’나 ‘까닭’을 나타내는 명사 ‘故’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예7)의 ‘其+동사’ 구조는 동사와 관련된 명사의미가 생략이 된 형태인데, 여기서 ‘其學’은 ‘그 배운 것’의 의미로 동사 ‘學’의 객체가

4) 李昭東, 「고대중국어 동사화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54집, 2014년, 493-496쪽.

5) 李昭東, 「고대중국어 “有/無+以VP”구조와 그 상관구조 분석」, 『한국중국어학회』, 2013년, 133쪽.

생략이 된 형태이다. 『孟子』 내 이 외에도 ‘不失其馳’(『孟子·滕文公上』), ‘受其賜乎?’(『孟子·滕文公上』), ‘親其親’, ‘長其長’(『孟子·離婁上』) 등의 용례가 있는데, 각각 ‘말달리는 방법’, ‘하사한 물건’, ‘부모’, ‘어른’의 의미로 ‘방법’, ‘물건’, ‘사람’ 등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고대중국어에서 이러한 명사의 생략 역시 개별적인 현상이 아닌 동사의 명사화 규칙에 부합되는 통사구조의 특징이며 문장의 간결화를 가져오는 동인이 된다.

- 8) 勞心者治人, 勞力者__治於人, __治於人者食人, 治人者__食於人, 天下之通義也. 『孟子·滕文公上』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려진다.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남을 먹이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먹여지는 것이 천하의 일반적인 뜻이다)
- 9) 爲得罪於父, 不得近, 出妻屏子, 終身不__養焉. 『孟子·離婁下』
(부친에게 죄를 얻었다고 여겨 가까이 갈수도 없었고 처와 아들을 멀리하여 종신토록 봉양을 받지 않았다)
- 10) 且子食__志乎? 食__功乎? 曰, “食__志.” 『孟子·滕文公下』
(“그대는 뜻을 위해 먹는가? 공을 위해 먹는가?” 말하기를 “뜻을 위해 먹습니다”라 하였다)
- 11) 昔者有饋生魚於鄭子產, 子產使校人畜之__池. 『孟子·萬章上』
(옛날 정 자산에게 살아 있는 물고기를 보내오자 자산은 校人에게 못에서 기르도록 하였다)
- 12) “天下溺, 援之以道, 嫂溺, 援之以手——子欲手援天下乎?” 『孟子·離婁上』
(천하가 어지러우면 도로써 구제하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한다. 그대는 손으로 천하를 구하려 하는가?)

위의 예문에서 밑줄은 고대중국어의 의미구조에 비추어 볼 때 개사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다. 예문 8)에서 ‘治於人’, ‘食於人’은 ‘남에게 다스려지다’, ‘남에게 먹여지다’의 피동 의미로 비록 고대중국어에서 피동 표지인 개사 ‘於’가 출현하고 있지만 단지 주체만 나타낼 뿐, 동사의 앞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爲’나 ‘被’ 등의 개사가 필요하다. 예 9)의 동사 ‘養’도 여기서는 ‘봉양을 받는다’의 의미로 피동의 의미이지만 피동을 나타내는 개사가 누락되어 있다. 예 10), 11), 12)의 ‘食志’, ‘畜之

池’, ‘手援天下’는 각각 ‘뜻을 위해 먹다’, ‘언뭇에서 기르다’, ‘손으로써 천하를 구하다’의 의미로 각각 목적, 장소, 도구를 나타내는 개사 ‘爲’, ‘於’, ‘以’가 생략되어 있다. 고대중국어에서 개사의 생략 또한 아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개사가 있는 표현에 비해 분명 긴박감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위의 예시에서, ‘食志’, ‘手援’처럼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될 만큼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기타 품사의 생략에 대해 살펴보면,

- 13) ‘然則吾子與管仲__孰賢?’ 『孟子·公孫丑上』
(그러면 그대와 관중 중에 누가 현명한가?)
- 14) 是何異於刺人而殺之, 曰, ‘非__我也, __兵也.’ 『孟子·梁惠王上』
(이것은 사람을 찔러 죽여 놓고 “나 때문이 아니라 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15) __尺地莫非其有也, __一民莫非其臣也, 然而文王猶方百里起, 是以難也. 『孟子·公孫丑上』
(한 척의 땅이라도 그의 소유 아님이 없고, 한 명의 백성이라도 그의 신하 아님이 없었다. 그러나 문왕은 방 백리를 가지고 흥기하였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다)

예13)에서 ‘吾子與管仲’은 문장에서 주어와 아님, 부사어로 ‘그대와 관중 중에서도’의 의미이며, 14)의 밑줄에는 의미상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以’가 들어가야 되지만 생략되어 있다. 15)의 ‘尺地’와 ‘一民’ 역시 ‘비록 한척의 땅이라도’, ‘비록 한명의 백성이라도’의 양보를 나타내는 종속구의 의미이지만 단지 하나의 명사로만 표현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문장에서 주로 생략되는 성분은 동사 중에서도 관계동사, 비유동사, 존재동사, 조동사 등과 주체나 객체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所’, ‘者’, 그리고 각종 개사, 방향사, 접속사 등이다. 이들은 모두 어휘의미가 약하다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고대중국어에서 통사적 방법에 의한 경제적 언어구사 방법으로, 독자로 하여금 최대한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어휘의미가 약한 이들 단어가 주로 생략됨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3. 어휘적 방면

어휘적 방면에서의 경제적 언어구사는, 품사의 단순 생략에 의한 통사적 방면과 달리, 단어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휘 자질로 인한 의미 전환에 의해 발생한다. 『孟子』내의 용례는 모두 명사가 동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제사나 예의’를 의미하는 명사 ‘祀’, ‘禮’는 일종의 행위명사로 일련의 관련된 과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진술화의 관점에서 볼 때, 명사지만 내부에 동작 등을 나타내는 진술 성분이 많아 동사로 전환되기가 쉽다. 명사 ‘祀’와 ‘禮’는 서술어의 위치에서 ‘제사를 행하다’, ‘례를 행하다’의 ‘爲祀’, ‘行禮’ 정도의 의미지만, 보통 단독으로 많이 쓰인다. 즉 어휘방면에서 발생하는 축약은 생략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단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의미의 내포에 의해서이며, 『孟子』 내에서 이러한 단어의 내포의미는 크게 아래의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지나다(過)류: 지나다, 흐르다, 가다

- 16) 詩云, ‘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 『孟子·梁惠王上』
(시경에 이르기를 “처음 영대를 지음에 측량하고 만드니 백성들이 함께 지음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완성하였다”고 한다)
- 17) 宣王問曰, “或謂寡人勿取, 或謂寡人取之. 以萬乘之國伐萬乘之國, 五旬而舉之.” 『孟子·梁惠王下』
(선왕이 묻기를 “혹자는 취하지 말라고 하며 혹자는 취하라고 한다. 만승의 나라가 만승의 나라를 공격하여 50일이 지나자 점령을 하였다”)
- 18) 填然鼓之, 兵刃既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 『孟子·梁惠王上』
(둥둥 북이 울리고 무기들이 서로 부딪히자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끌며 도망을 감에, 혹 백보를 간 뒤에 멈추고 혹 오십보를 간 뒤에 멈추었다. 오십보 간 자가 백보 간자를 비웃는다면 어떻습니까?)

위의 예문에서 수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명사성수식 구조 ‘(一)日’, ‘五旬’, ‘百步’, ‘五十步’는 각각 ‘하루가 지나다’, ‘오십일이 지나다’,

‘백보를 가다’, ‘오십보를 가다’의 의미로 내부에 ‘지나다’, ‘가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명사는 의미적 특징상 ‘흘러가고’ ‘지나가는’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결합하여 동사 없이 쓰이기 쉬운 것이다. 위의 예시 외에 『孟子』내에 ‘지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례로는 “千里而見王(천리를 가서 왕을 알현하다)” 『孟子·公孫丑下』, “禹八年於外(우는 밖에서 8년을 보냈다)” 『孟子·滕文公上』, “君子之澤五世而斬(군자의 은택은 오대가 지나면 끊어진다)” 『孟子·萬章下』, “伊尹放之於桐, 三年, 太甲悔過(이윤이 그를 동땅에 추방하였는데 3년이 지나자 태갑이 잘못을 뉘우쳤다)” 『孟子·告子上』, “孔子曰, ‘舜其至孝矣, 五十而慕.’(공자가 말하기를 순은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오십이 지나도록 흠모하였으니)” 『孟子·告子下』 등이 있다. 아래의 경우는 수사와 명사의 결합이지만 어휘적 방면에서의 동사 내포가 아닌 통사적 방면에서 판단동사나 관계동사의 생략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19) 天子之地方千里, 不千里, 不足以待諸侯. 諸侯之地方百里, 不百里, 不足以守宗廟之典籍. 『孟子·告子下』
 (천자의 땅은 방 천리인데 천리가 아니면 제후를 대접할 수 없다. 제후의 땅은 방 백리인데 백리가 아니면 종묘의 전적을 지킬 수 없다)
- 20) 今有璞玉於此, 雖萬鎰, 必使玉人彫琢之. 『孟子·梁惠王下』
 (지금 여기에 옥이 있는데, 萬鎰의 옥이라도 옥인에게 쪼개 해야 한다)

위의 예문에서 ‘方千里’, ‘千里’, ‘方百里’, ‘百里’, ‘萬鎰’은 수사와 명사로 구성된 명사성수식구조이지만 어휘적 의미와 상관없이 판단동사 ‘是’나 ‘爲’ 혹은 관계동사 ‘至’, ‘及’ 등이 생략되어 있는 통사적 방면에서의 생략구조로 보아야 한다.

② 되다(爲)류: 되다, 삼다(되게 하다)

- 21) 故湯之於伊尹, 學焉而後臣之, 故不勞而王, 桓公之於管仲, 學焉而後臣之, 故不勞而霸. 『孟子·公孫丑下』
 (탕은 이윤에게서 배운 뒤에 그를 신하로 삼아 수고롭지 않게王者

이 되었고, 환공은 관중에게 배운 뒤에 그를 신하로 삼아 수고롭지 않게 霸者가 되었다.)

- 22) 孟子曰, “不挾長, 不挾貴, 不挾兄弟而友.” 『孟子·萬章下』
(孟子가 말하기를 “나이 많음을 의지하지 않으며 귀함에 의지하지 않으며 형제에 의지 하지 않고 벗 한다”라 하였다)
- 23) “得百里之地而君之, 皆能以朝諸侯, 有天下, 行一不義, 殺一不辜, 而得天下, 皆不爲也. 是則同.” 『孟子·公孫丑上』
(백리의 땅을 얻어 거기서 군주가 됨에, 모두가 제후들을 조회 오게 하여 천하를 소유할 수 있다. 하나라도 불의의 행동을 하며 한 명이라도 무고한 자를 죽여서 천하를 얻는 것은 모두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같다)

邢福义는 현대중국어 명사 가운데 ‘NP了’구식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推移性’을 가진 동사로 서술어 위치에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고 하였고,⁶⁾ 马庆株 또한 ‘순서어’를 가진 명사는 진술 작용을 띠고 있어 서술어가 될 수 있으며 ‘了’나 시간부사, 범위부사 등을 붙일 수 있다고 하였다.⁷⁾ 위의 예시 속의 명사들, ‘王’, ‘臣’, ‘霸’, ‘友’, ‘君’은 사실 이들이 언급한 ‘추이성’과 ‘순서어’를 가진 명사들이다. 본래 이러한 신분이 아니었다가 이런 신분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신분명사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명사는 내부에 이미 ‘되다’라는 진술성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서술어 위치에 출현하는 것이다.

③ (행)하다(行)류: 행하다, 실시하다, 다하다.

- 24)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孟子·滕文公上』
(夏后氏는 오십묘에 貢법을 시행하고 殷人은 칠십묘에 助법을 시행하였으며, 周人들은 백묘에 徹법을 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모두 什一법이다)
- 25) “有楚大夫於此, 欲其子之齊語也, 則使齊人傳諸? 使楚人傳諸?” 曰, “使齊人傳之.” 『孟子·滕文公下』
(“여기에 초대부가 있는데 그 자식이 제나라 말을 하게 하고자 한

6) 邢福义, 「说NP了句式」, 『语文研究』第三期, 1984, pp.23~28

7) 马庆株, 「顺序义对题词语法功能的影响」, 『中国语言学报』第四期, 1991.

다면 齊人을 스승으로 삼겠는가? 楚人을 스승으로 삼겠는가?” 말하기를 “齊人을 스승으로 삼겠습니다.”라 하였다)

- 26) 孔子曰, “天無二日, 民無二王.” 舜既爲天子矣, 又帥天下諸侯以爲堯三年喪, 是二天子矣.” 『孟子·萬章上』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에 2개의 태양이 없듯이, 백성에게 2명의 왕이 없다.”고 하였는데, 순이 이미 천자가 되었고, 또한 천하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요를 위해 삼년상을 치우었다면 이는 2명의 천자인 것입니다)

위 예문의 ‘貢’, ‘助’, ‘徹’, ‘齊語’, ‘三年喪’과 같은 명사는 모두 소위 ‘과정의’가 있는 명사들로서 내부에 동작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貢’, ‘助’, ‘徹’은 모두 당시 세법의 종류로서 무엇을 얼마나 거두어서 받치는 모든 과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齊語’와 같은 말을 나타내는 명사는 입으로 이미 동작되어지고 있는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 ‘三年喪’도 마찬가지로 초상을 치는 모든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들 명사는 이러한 ‘과정의’ 때문에 종종 서술어자리에서 이러한 행위를 ‘행한다’, ‘실시하다’ 정도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예문25)의 ‘傳’는 과정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다류’로 ‘순서의’를 내포하고 있는 신분명사이다. 『孟子』내 ‘과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는 이 외에도 ‘田獵(사냥하다)’, ‘田(사냥하다)’, ‘祀(제사를 지내다)’, ‘禮貌(예모를 다하다)’ 등이 있다.

④ 만들다(爲)류: 만들다, 짓다

- 27) 域民不以封疆之界, 固國不以山谿之險, 威天下不以兵革之利. 『孟子·公孫丑下』
 (백성을 나눌 때 땅의 경계로써 하지 않으며, 나라를 견고하게 함에 산천의 험난함에 의지하지 않으며, 천하에 위엄을 떨침에 무기의 날카로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28) 去邠, 踰梁山, 邑于岐山之下居焉. 『孟子·梁惠王下』
 (邠땅을 떠나 梁山을 넘어 岐山의 아래에 읍을 건설하여 거하였다)

위 예시에서 명사 ‘域’, ‘邑’은 본래 ‘구역’, ‘읍’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구역을 짓다’, ‘읍을 만들다/세우다/건설하다/경영하다’의 의미이다. ‘구역’, ‘읍’과 같은 명

사들은 이미 동작이 일어난 결과로 만들어진 의미로 역시 내부에 일종의 동작의 ‘결과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기타류

- 29) “許子冠乎?” 曰, “冠.” 『孟子·梁惠王下』
(“허자는 관을 쓰는가?” 말하기를 “관을 씩니다.”라 하였다)
- 30) 權, 然後知輕重, 度, 然後知長短. 『孟子·梁惠王下』
(저울질을 한 연후에 경중을 알 수 있으며 길이를 잴 연후에 길고 짧음을 알 수 있다.)
- 31)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祿. 『孟子·梁惠王下』
(옛날 문왕이 岐땅을 다스릴 때, 농사짓는 이는 九一법을 시행하고 벼슬하는 이들은 대대로 녹을 받게 하였다)
- 32) 寡人如就見者也, 有寒疾, 不可以風. 『孟子·梁惠王下』
(과인이 나아가 알현하려고 했으나 감기기운이 있어 바람을 쐬 수 없습니다)

앞의 세 예문에서 서술어위치에 있는 명사 ‘冠’, ‘權’, ‘祿’은 각각 ‘관을 쓰다’, ‘저울질을 하다’, ‘록을 받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들 명사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관은 쓰는 용도이며, 저울은 무게를 재는 용도이며, 녹은 누구에게 수여하거나 누가 받는 용도가 거의 유일하며 대표적이다. 게다가, 관, 저울, 록을 떠올리면 관을 착용하고, 저울질을 하고, 록을 받는 모습을 떠올릴 만큼 이와 관련된 동작이 이미 그 단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32)에서 명사 ‘風’은 ‘바람을 쐬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바람은 항상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동작과 분리 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 상당히 많은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어휘방면에서의 축약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통사적 생략이 아닌 단어 내부에 가지고 있는 확장의미를 통해 다른 표현을 대신하여 간결한 표현을 연출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화용적 방면

모든 언어는 불필요한 반복을 줄여 소통의 원활함을 꾀한다. 의미의 인식에 있어 모호함이나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단락 혹은 한 문장의 반복되는 성분을 생략하는 것이 그 주요 수단인데, 고대중국어에서는 기타 언어에 비해 그 생략 정도가 훨씬 높다. 화용적 방면에서의 생략은 전후 문맥에 의해 반복되는 문장성분의 생략이므로 품사 자체의 의미성분이나 통사적 어법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① 주어의 생략

- 33) 充虞請曰, “前日__不知虞之不肖, 使虞敦匠事. __嚴, 虞不敢請. 今__願竊有請也, 木若以美然.” 『孟子·公孫丑下』
 (充虞가 청하기를 “전날 선생님께서 저의 불초함을 모르고 저에게 목수 일을 맡겼습니다. (그 때)상황이 급박하여 제가 감히 청하지 못했는데, 원컨대 청하고 하옵니다. 나무가 너무 아름다운 듯 했습니다.”라 하였다)
- 34) 孟子謂齊宣王曰, “王之臣有託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者, 比其反也, 則__凍餒其妻子, 則__如之何?” 王曰, “棄之.” 『孟子·梁惠王下』
 (孟子가 齊宣王에게 말하기를 “왕의 신하 가운데 그 처자를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놀러 간 자가 있는데, 돌아 왔을 때 그 처자를 얼어 죽게 하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 하자, 왕이 “버릴 것이다”라 하였다)
- 35) 孟子曰, “__仁則榮, __不仁則辱” 『孟子·公孫丑上』
 (孟子가 말하길 “인하면 영화롭고 불인하면 욕된다”고 하였다)

주어는 현대중국어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사용되는 반면, 고대중국어에서는 무 주어 구문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주어의 명사화도 없으면, 의미의 전달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종종 생략이 되는데, 예 33)에서 앞 문장의 서술어 ‘不知’의 주어는 ‘孟子’이고 다음 문장의 서술어 ‘嚴’의 주어는 ‘상황’, ‘일’ 정도가 된다. 문장이 바뀌고, 주어가 바뀌지만 주어가 모두 생략되고 있어, 전후 문맥에 의해 주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예 34) 역시 앞 절에서의 주어가 ‘王之臣’이었지만

그 다음 절에서 서술어 '凍餒'의 주어는 '其友'가 되며, 다음 절의 서술어 '如之何'의 주어는 '王'이 되어, 한 문장 내의 연속되는 절에서도 주어가 모두 다르지만 생략이 되고 있다. 예 35)와 같이 고대중국어에서 범칭을 나타내는 주어의 생략 또한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② 서술어의 생략

- 36) “何哉, 君所謂踰者? 前以士___, 後以大夫___, 前以三鼎___, 而後以五鼎___與?” 『孟子·公孫丑下』
(무엇인가, 그대가 말하는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전에는 士의 예로 장사지냈는데, 뒤에는 대부의 예로 장사지내고, 전에는 三鼎의 예로 장사지냈는데, 뒤에는 五鼎의 예로 장사지낸 것을 말하는가?)
- 37) 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 如以利___, 則枉尋直尺而利, 亦可爲與? 『孟子·滕文公下』
(무릇 한 尺을 굽혀 한 尋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익으로 말한 것이다. 만약 이익으로 말한다면 한 尋을 굽혀 한 尺을 바르게 하더라도 이로우면 또한 할 것이다)
- 38) 王速出令, 反其旄倪, 止___其重器, 謀於燕衆, 置君而後去之, 則猶可及止也. 『孟子·梁惠王下』
(왕께서는 속히 명령하시어, 그 노인과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그 보물 옮기는 것을 멈추게 하고 연나라 백성들과 모의하여 군주를 정하고 떠난다면 오히려 멈출 수 있습니다)

고대중국어에서 서술어의 생략은 아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예36)에서처럼 개사구조의 뒤나 앞에서 종종 생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평공이 孟子를 만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孟子의 후상이 전상보다 사치스러움을 든 것에 대한 孟子의 답변으로 밑줄 친 부분은 '喪(상을 치르다)' 정도의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37) 역시 개사구조 뒤에 서술어가 생략이 되었는데, 앞 절에서의 '以利言也'에 대한 동일한 서술어 '言'의 반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예문39)의 '止其重器'는 그대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되는데, 앞 문장의 내용과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기물들을 옮기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중기 자체에 '옮기다'라는 어휘의미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용적 측면에서의 생략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와 같이 부

사 다음에 서술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39) 徧__國中無與立談者. 卒之東郭墦間, 之祭者, 乞其餘. 『孟子·離婁下』
 (나라 가운데 두루 다녀도 더불어 얘기 나누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동곽의 무덤 사이 제사 지내는 이에게 가서 남은 것을 구걸하였다)
- 40) 且比化者無使土親__膚, 於人心獨無校乎? 『孟子·公孫丑下』
 (죽은 자를 위해 흙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함이 사람의 마음에 흡족함이 아니겠는가?)
- 41) 他日, 又求見孟子. 孟子曰, “吾今則可以見矣. 不直__, 則道不見, 我且直__之.” 『孟子·滕文公上』
 (다른 날에 다시 孟子를 뵈기 청하자, 孟子가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만나 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도가 드러나지 않으니, 나는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라 하였다)
- 42) 當是時, 陽貨先__, 豈得不見? 『孟子·滕文公下』
 (이 때 陽貨가 먼저 예로 대하였다면 어찌 만나지 않았겠는가?)

위 예문에서 부사 '徧', '親', '直', '先'의 뒤에 서술어가 없이 목적어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후 문맥에 의한 서술어의 생략으로 부사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준 것이다. 각각의 의미는 '두루 다니다', '직접 닿다', '직설적으로 말하다', '먼저 대우를 하다' 정도로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서술어의 생략은 일반적으로 개사구조나 부사 등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이는 부사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목적어의 생략

- 43) 對曰, ‘然則廢罍鐘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 一不識有__諸? 『孟子·梁惠王上』
 (대답하기를 “그러면 罍鐘을 폐하시겠습니까?”라고 하자 왕이 말하기를 “어찌 폐하겠는가? 양으로 바꾸어라”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44) 王曰, “否, 吾何快於是? 將以__求吾所大欲也.” 『孟子·梁惠王上』

(왕이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어찌 이에 만족하겠는가? 장자 내가 크게 하고자하는 바를 구하고자해서이다”)

45) 滕文公問曰, “滕, 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孟子·梁惠王下』

(등문공이 묻기를 “등은 소국이어서 힘을 다해 대국을 섬긴다 한들 망국에서 면할 수 없으니 어찌해야 좋겠습니까?”라 하였다)

주어나 목적어는 반복 출현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명사로 대신하나 고대 중국어에서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생략 또한 흔하다. 예43)에서 서술어 ‘有’는 타동사로 ‘이러한 일’, ‘이러한 말’등의 목적어가 필요하지만 생략이 되어있다. 특히 예 44)와 같이 개사 ‘以’의 목적어는 종종 생략이 되는데, 이는 ‘以’가 뒤에 접속사로 발전하는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예45)에서 서술어 ‘免’의 목적어가 앞의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전체 의미상 유추가 가능하여 생략이 된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亡國’ 정도가 생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의미의 축소

46) “否, 自有生民而來, 未有孔子也.” 『孟子·公孫丑上』

(“아니다 백성이 있는 이래 공자 같은 자는 없다”)

47) 吾之不遇魯侯, 天也. 臧氏之子焉能使予不遇哉? 『孟子·梁惠王下』

(내가 魯侯를 만나지 못함은 천명이다. 臧氏의 자식이 어찌 나로 하여금 못 만나게 할 수 있겠는가?)

48) 一齊人傅之, 衆楚人咻之, 雖日撻而求其齊也, 不可得矣, 引而置之莊嶽之間數年, 雖日撻而求其楚, 亦不可得矣. 『孟子·滕文公下』

(한 명의 齊人이 가르치고 여러 楚人이 떠들어대면 비록 매일 종아리를 치며 제나라 말하기를 구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데려다가 莊嶽의 사이에 수년을 거하게 하면 매일 종아리 치며 초나라 말하기를 구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49) 人見其禽獸也, 而以爲未嘗有才焉者, 是豈人之情也哉? 『孟子·告子上』

(사람들이 그 금수 같은 행위를 보면 훌륭한 재질을 가지지 못했다고 여기는데, 이것이 어찌 사람들의 타고난 실정이겠는가?)

화용적 측면에서 볼 때, 문장성분의 생략 외에 또 하나의 축약현상은 의미가 복잡한 구를 하나의 대표 단어로 축소를 시키는 것인데, 현대중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예 46)에서 ‘未有孔子’는 글자그대로의 의미인 ‘아직 공자가 없다’가 아니라, ‘아직 공자 같은 이는 없다’의 의미로 ‘공자 같은 이’를 ‘공자’ 한 단어로 나타내고 있다. 예 47)에서 ‘天’은 단순히 ‘하늘’의 의미가 아니고 ‘천명’의 의미이다. 예 48)에서 ‘求其齊’, ‘求其楚’를 만약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제나라를 구하다’, ‘그 초나라를 구하다’의 의미 정도가 되겠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각각 ‘그가 제나라 말을 할 것’, ‘그가 초나라 말을 할 것’의 의미로 ‘제나라 말을 하는 것’, ‘초나라 말을 하는 것’을 전후 문맥에 의존하여 간단하게 ‘齊’, ‘楚’의 핵심 단어만을 써서 나타내고 있다. 예 49)의 ‘其禽獸’ 역시 글자그대로 ‘그 짐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짐승 같은 행위’의 의미로 ‘짐승’이라는 글자로 ‘짐승 같은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화용적 측면에서의 생략은 보편적인 언어현상으로 생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때가 많다. 고대중국어에서의 경우는 이러한 생략이 기타 언어뿐만 아니라 현대중국어에 비해서도 상당히 활발한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생략을 해서는 안 되는 같은 절에서 주어가 다른 경우나 문장이 바뀌는 경우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5. 수사적 방면

중국어는 흔히 음률 언어라고 일컬어지는데, 음운학 방면에서 성조의 존재와 모음의 다양성 등과 어법방면에서 字句의 대구 등이 음악성을 대표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고대중국어는 비록 산문이라 하더라도 자구의 대구가 많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운문에서 느낄 수 있는 여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자구의 대구가 경제적 언어구사를 위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명사화의 방면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크게 하나의 절 안에서 대구를 이루는 절 내의 대구와 절과

절이 대구를 이루는 절 간의 대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절 내의 대구

- 50)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孟子·滕文公下』
(산 자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
- 51)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 以小易大, 彼惡知之? 『孟子·滕文公下』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이 소를 아끼워한다고 여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꾼 것을 저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 52) 孟子曰, “尊賢使能, 俊傑在位, 則天下之士, 皆悅.” 『孟子·滕文公下』
(孟子가 말하기를 “현자를 높이고 능자를 부리며 준걸한 이들이 벼슬자리에 있으면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기뻐한다”고 하였다)

위의 예문은 모두 하나의 절 안에서 두 자씩 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 모두 4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50)의 ‘養生喪死’에서 ‘生’과 ‘死’는 동사의 의미가 아닌 ‘生者’와 ‘死者’의 의미이다. 51), 52)의 ‘小’, ‘大’, ‘賢’, ‘能’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본의가 아닌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모두 표기가 없는 변환지시의 명사화가 발생한 경우로 수사적 방면에서 짝수의 음절수를 맞추어 음악성을 배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 52)의 ‘俊傑在位’에서 ‘俊傑’도 마찬가지인데, 앞의 술목구조의 대구와 달리 주어를 열거해 놓은 방식이다.

- 53) 子謂薛居州, 善士也, 使之居於王所. 在於王所者, 長幼卑尊皆薛居州也, 王誰與爲不善? 『孟子·滕文公下』
(그대는 薛居州를 훌륭한 선비라고 여겨 그를 王所에 두었는데, 王所에 있는 자들, 나이가 많고 적은 자, 지위가 낮고 높은 자가 모두 薛居州와 같다면 왕이 누구와 더불어 不善을 하겠는가?)
- 54) 凶年饑歲, 君之民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孟子·梁惠王下』
(흉년에 군의 백성 가운데 노약자들이 구덩이에서 텅굴고 장자들 중 흩어져 사방으로 다니는 자들이 수천입니다)

위의 예문에서 ‘長幼卑尊’, ‘老弱’은 모두 열거의 방식으로 사람을 나타내어 명사화한 경우인데, 역시 수사적 방면에서의 간결한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절 간의 대구

- 55) 萬取千焉, 千取百焉, 不爲不多矣. 『孟子·梁惠王上』
(만에서 천을 취하고, 천에서 백을 취함이 많지 않음이 아니다)
- 56)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孟子·梁惠王上』
(나의 어르신을 어르신으로 공경하여 남의 어르신에 미치고 나의 어린 아이를 어린 아이로 사랑하여 남의 어린 아이에 미친다)
- 57) 爲肥甘不足於口與? 輕煖不足於體與? 『孟子·梁惠王上』
(기름지고 달콤함 것이 입에 부족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이 몸에 부족해서입니까?)
- 58) 然則小固不可以敵大, 寡固不可以敵衆, 弱固不可以敵強. 『孟子·梁惠王上』
(그런즉, 작은 것은 진실로 큰 것에 상대가 되지 않고, 적은 것은 진실로 많은 것의 상대가 되지 않으며 약한 것은 진실로 강한 것에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위 예문에서의 대구구조는 모두 절과 절의 대구를 나타내는데, 전후가 모두 같은 자수, 같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비록 명사 없이 형용사, 동사로만 명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비교적 쉽게 의미를 알 수 있다. 수사적 방면에서의 대구는 대부분이 이러한 절과 절 간이며, 특히 『孟子』와 같은 철리산문에서 더욱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구를 통해 화자의 관점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수사적 효과 때문이다. 이 외에도 『孟子』 내에 아래와 같은 절과 절간의 대구적 표현이 보인다.

春省耕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給 『孟子·梁惠王下』
 行一不義, 殺一不辜 『孟子·公孫丑上』
 小德役大德, 小賢役大賢//小役大, 弱役強 『孟子·離婁上』
 耳無聞, 目無見也.// 耳有聞, 目有見 『孟子·滕文公下』

道在邇而求諸遠, 事在易而求諸難 『孟子·離婁上』
 中也養不中, 才也養不才 『孟子·離婁下』
 天與賢, 則與賢, 天與子, 則與子 『孟子·萬章上』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也 『孟子·萬章上』
 辭尊居卑, 辭富居貧 『孟子·萬章下』

고대중국어의 경제적 언어사용에 대해, 4가지 방면에서의 구체적 표현 방법을 살펴보았다. 고대중국어가 현대중국어에 비해 상당히 축약되고 생략되어 있지만 모두 이러한 4가지 방법 혹은 규칙에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 4가지 방법이 현대중국어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빈번하고 폭넓게 발생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설명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安’이 서술어의 위치에서 ‘편안하게 여기다’의 의미가 될 때 어법학계에서는 이를 품사의 임시전환, 즉 동사화로 간주하며, 더 나아가 동사를 겸하는 겸류사라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통사적 방면서의 생략으로 문장에서 문장 성분으로 탈락으로 야기된 결과이지 본래 품사적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품사의 임시전환과 겸류사 사이의 기준문제는 현재까지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환의 발생 빈도인데, 혹자는 5번의 임시전환이 발생하면 겸류사로 간주하기도 한다. 전환의 발생 빈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어의 품사를 단정하는 근거가 바로 문장에서의 기능, 즉 분포와 어법 기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위의 4가지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어휘적 방면에서 하나의 명사가 동사성 성분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사, 화용, 수사적 각도에서의 전환은 품사의 전환이 아닌 문장에서 해당 성분의 생략이므로 전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결론

동한시대부터 점진적으로 전파된 불경은 고대중국어의 단음절 단어를 다음절로 바꾸는 혁신을 가져왔다. 이로 말미암아 단음절 단어가 기본 품사단위였던 동

한시대 전의 중국어가 그만큼 문장이 간결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고대중국어에서 실제로 경제적인 언어를 구사했던 원인은 여기에 있지 않다. 단음절 단어로 인한 문장의 간결화는 간과해도 좋을 정도로 적은 부분이며, 대부분의 원인이 고대중국어의 통사, 어휘, 화용, 수사적 방면에서의 생략과 내포로 인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통사적 방면에서의 생략구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어휘 방면에서의 내포가 비교적 낮은 빈도로 발생한다.

통사적 방면에서 보면, 서한시대에 탄생했던 판단계사 ‘是’를 비롯하여 관계동사, 비유동사, 존재동사, 조동사 등과 개사, 접속사, 방향사, 의존명사 등이 자유롭게 생략이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어휘의미가 약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휘적 방면에서 볼 때, 『孟子』에서는 모두가 명사 내부에 동사의 의미적 특징인 진술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경우로, ‘王’, ‘臣’, ‘傅’와 같은 신분 명사들은 ‘되다(爲)’와 같은 ‘순서의’를 내포하고 있고,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수사어와 명사의 조합은 ‘지나다’, ‘가다’의 ‘시간의’를, ‘貢’, ‘禮’, ‘喪’과 같은 행위명사들은 ‘행하다’와 같은 ‘과정의’를, ‘域’, ‘邑’과 같은 명사들은 ‘만들다’와 같은 ‘결과의’를 내포하고 있어 종종 이들 명사만으로 술어를 대신한다. 화용적으로 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위치에서 동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생략이 되는데, 서로 다른 주어로 이어지는 전후 절이나 전후 문장에서의 주어 역시 생략이 되고 있어 해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적인 방면에서, 대구의 수단을 통해 글자의 자수를 맞추기 위해 생략이 일어나는데, 절 내에서 보다 절과 절간의 대구가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화의 용례가 많다.

고대중국어에서 경제적 언어사용의 실체에 대해 4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모두 일정한 규칙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의 발견과 적용은 고대문헌의 해독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參考文獻〉

- 成百曉譯註, 『孟子集注』,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6년.
楊伯峻譯註,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1988년.
趙岐, 『孟子章句』, 『孟子定本』 내, 『漢文大系』 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朱熹, 『孟子集注』, 『孟子定本』 내, 『漢文大系』 第1冊, 東京, 富山房, 1984.
李昭東, 「고대중국어 동사화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54집, 2014년.
李昭東, 「고대중국어 “有/無+以VP”구조와 그 상관구조 분석」, 『중국언어연구』, 2013년.
邢福義, 「說“NP了”句式」, 『語文研究』 第三期, 1984.
馬慶株, 「順序義對題詞語法功能的影響」, 『中國語言學報』 第四期, 1991.
朱德熙, 「自指和轉指—漢語名詞化標記“的、者、所、之”的語法和語義功能」, 『朱德熙文集』 第三卷, 北京: 商務印書館, 1983/1999.

〈Abstract〉

A Study on the Substantiality of Economical Language Use
in Ancient Chinese
- Centering around 《MNEGZI》 -

Economical language use in Ancient Chinese is caused by the omission and connotation of words. The omission and connotation of words can occur in four fields: syntactic field, lexical field, pragmatic field, rhetorical field. First, the omission of the syntactic field mainly occurs in the relational verbs and existence verbs, auxiliary verb, preposition, conjunctions, dependent noun ‘所’, ‘者’ and so on. What these word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have a little lexical meaning. The connotation of lexical field mainly occurs in noun at the predicate position. These nouns themselves includes time-meaning, sequence-meaning, process meaning. The omission of the pragmatic field, same as modern Chinese, occurs in subject, predicate, object position. The omission of the rhetorical field mainly occurs in an antithesis-expression in one clause or two clause.

Key Words: Ancient Chinese, omission, connotation, syntactic field, lexical field, pragmatic field, rhetorical field.

이 논문은 2017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2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2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